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9
2025.10.27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2026년 기후·에너지 입법 패키지 발표
- 프랑스, EU 2040 기후목표에 국제 탄소크레딧 5% 활용 제안
- 80개국 이상,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시스템 구축 본격화
- 말레이시아, 파리협정 제6조 활용해 2035년 절대감축 목표 확정
- EU, ETS2 가격 급등 방지책 마련 추진
- IMO, 해운 탄소가격제 논의 재개
- Verra, 쿡스토브 프로젝트로 CORSIA 크레딧 340만 개 발행 승인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2026년 기후·에너지 입법 패키지 발표

EU 집행위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ETS 개정, 재생에너지 및 효율 관련 법률 업데이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을 포함한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추진함.

문서의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안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

ETS에는 탄소제거 (CDR) 기술 통합과 국제 크레딧 최대 3% 활용 허용이 포함되고, CO₂ 운송·저장 인프라, 전기화 전략, 핵융합 발전소 개발, 청정기술 산업 지원 등이 EU의 2040년 90% 감축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병행될 전망



프랑스, EU 2040 기후목표에 국제 탄소크레딧 5% 활용 제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을 최대 5% 허용할 것을 제안

이는 EU집행위의 3% 상한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비용 효율성, 원자력 에너지 인정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 개발도상국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그는 2030년 재검토 조항을 도입해 기술·자연 흡수원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회원국 간 감축 부담 재조정을 요구.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는 유지하되, 전기차 외의 저탄소 기술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힘.

EU 정상들은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조. 2040년 목표의 최종 결정은 11월 4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



80개국 이상,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시스템 구축 본격화

전 세계 80여 개국이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탄소시장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

글로벌 환경전략연구소 'IGES'와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파트너십 센터 'A6IP'의 보고서에 따르면, 14개국이 UNFCCC에 초기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양자협력 협정은 61개국 99건으로 급증

제6.4조 메커니즘 (PACM)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1,500 개 이상의 CDM 프로젝트 중 92건이 호스트국 승인을 받음.

Verra, Gold Standard 등 자발적 시장 표준과 제6조 규제시장 체계의 연계도 강화되는 추세

다만 각국의 법적 체계 부재, 수요 불확실성, 가격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

COP30을 앞두고 30개국이 새로운 NDC에 제6조 참여를 명시 하며,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파리협정 제6조 활용해 2035년 절대감축 목표 확정

말레이시아가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크레딧을 활용해 2035년까지 CO₂ 배출량을 최대 3천만 톤 감축하겠다고 밝힘.

이전에는 GDP 대비 배출량 감축만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제3차 NDC에서 국가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절대 감축’으로 전환. 2026~2035년을 실행 기간으로 설정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산림 보호 강화, 메탄 포집 확대 등이 핵심 정책

또한 싱가포르와 제6.2조 기반 탄소거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올해 중 이행협정 서명을 추진 중임.

말레이시아는 현재 2030년까지 국토 및 내수면의 2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 목표도 설정했으나, 기후 변화법 제정은 이해관계자 협의로 지연될 전망



EU, ETS2 가격 급등 방지책 마련 추진

EU가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규 탄소시장 ETS2의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가격 안정화 장치를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

ETS2는 난방 및 운송 연료의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해 친환경 난방 확산 및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연료비 상승으로 국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에 EU는 CO₂ 가격이 45유로 (약 7.5만 원)에 도달하면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안정화 강치를 강화해 2027~2029년 연간 최대 8천만 개까지 공급량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들이 청정기술 전환 투자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배출권 경매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



IMO, 해운 탄소가격제 논의 재개

IMO (국제해사기구)가 추진 중인 국제 해운 탄소가격제 넷제로 프레임워크 (NZF)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로 채택이 1년 연기. 다만, 이어진 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됨.

핵심 쟁점 세 가지:

- **바이오연료:**
 - 개도국은 팜유·대두유 기반 저가 바이오연료 포함을 주장
 - EU·태평양 도서국은 지속가능성·식량안보를 이유로 반대
- **ZNZ (Zero or Net Zero) 연료 보상 기준:**
 - 탄소배출이 '제로 또는 넷제로'인 연료에 대한 보상 기준 (배출량 기준선, 연료 구분 방법 등)
- **NZF 기금 운영방식:**
 - 연간 150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 기금의 분배 방식
 - 투명한 거버넌스와 책임체계 구축, IMO와 개발은행·UN기관의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NZF는 2026년 3월 기술 논의 후, 10월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

IMO는 내년 브라질에서 열릴 UN 기후정상회의 COP30와 긴밀히 협력해 다음 단계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 탈탄소화와 기후 금융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



Verra, 쿡스토브 프로젝트로 CORSIA 크레딧 340만 개 발행 승인

Verra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감비아의 쿡스토브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방법론에서 새로운 CORSIA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 적격 방법론으로 전환, 약 340만 개의 신규 크레딧이 발행될 예정

새로운 방법론은 CORSIA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인정받았으며, 자발적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 (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라벨도 조건부로 승인받음.

프로젝트 개발사 DelAgua는 양국 정부로부터 상응조정 승인을 받았으며, Verra의 보험 절차가 마무리되면 UN CORSIA 항공 상쇄시장에 크레딧을 공급할 예정

또한 DelAgua는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도 같은 방법론으로 재산정 받아 190만 개의 크레딧을 추가로 확보, 2025년 4분기부터 매년 300만 개 이상 CORSIA 크레딧을 공급할 계획

이는 현재 시장의 제한된 CORSIA 적격 크레딧 공급량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